

08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 영역 듣기 대본

1. 이제 강연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유난히 맑은 어느 가을날이었죠. 나는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한적한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길 양쪽으로 나무들이 죽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은 잔잔히 불어오고 나뭇잎들은 햇살 속에서 하늘거렸죠. 정말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모퉁이를 돌자 풍경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길 양쪽이 화재 때문에 검은 잿더미로 변해 있었어요. 처음 보는, 그 놀라운 광경 앞에서 차를 멈추고 말았습니다.

“어, 정말 끔찍하네.”

그러자 아내가, “그래요, 여보! 하지만, 꼭 나쁘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숲 속의 나무 밑에는 그동안 자랄 기회가 없었던 씨앗들이 있어요. 다시 햇빛이 비추고 비가 내린다면 새싹들이 돌아날 거예요. 그러면 숲은 강한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나겠죠.”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나는 아내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쁜 일로만 보이는 게 실제로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 직장에서 해고당한 일, 부모님을 여윈 일, 그것들은 모두 가슴 아픈 경험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나는 그런 실패와 고통을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경험들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몇 해가 흐른 뒤에 알았지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황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좌절과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되돌아보세요. 그 덕분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않았나요?

2. 이제 표어 심사평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협회에서 초보 운전 차량의 뒤 유리창에 붙일 표어를 공모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3등상. 정명수 회원님입니다. 유명한 시를 패러디했네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는 없습니다. 모두가 배려해 주고, 보살피 줄 때 병아리가 장담으로 크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2등상으로 민다영 회원님입니다. 온통 빠르게 달려가는 세상이지만 여유를 갖고 살자는 내용입니다. 표어처럼 회원님의 마음씨도 아름답겠죠? 이제 대망의 1등상, 영예의 1등상은……. 어라, 우리 회원님 중에 어린 학생이 있었나요? 면허증이 있어야 우리 회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애교스런 글을 앞에 두고, 누가 난폭 운전을 할까요? 어린 학생을 가장한 박설아 회원님이 1등입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소리)

이 밖에 순위에는 들지 못했지만, 응모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너도 옛날에는 나 같았다’ 하고 올챙이와 개구리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글은 좋았지만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살벌하게 겁을 주는 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붙였다가는 뒤차에 경각심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등외로 했습니다. 응모해 주신 여러 회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3. 이번에는 인터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자(여) :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문화주의의 전망과 미래 사회』를 저술하신 김철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다문화주의가 뭐죠?

교수(남) : 네, 오늘날엔 한 사회 내부에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현상이 일반적이죠. 여러 문화의 공존을 인정하고 그것의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려는 이론을 말합니다.

기자 : 그러면 다문화주의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교수 :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체로 문화 차이에 따른 사회적.정치적.경제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자 : 말씀을 들으니, 다문화주의는 이론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하겠네요.

교수 : 네, 많은 국가들이 다문화주의를 수용하여 국가 정책을 강구합니다. 하지만 그 실현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국가를 단일 민족 국가나 단일 이념 국가라고 여기는 경우엔 다문화주의가 단일성을 훼손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죠. 이러한 반감은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사실 소수 문화가 나름대로의 가치와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수 문화를 정책적으로 배려하자는 데에는 사회 구성원 간에 의견이 저마다 다릅니다.

기자 :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 시대에 다문화주의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교수 : 소수 문화를 존중하는 정책은, 이주민이나 이주 노동자 등 소수자들의 문화를 발전시켜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분열도 완화될 수 있고, 사회도 발전하겠지요.

기자 :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문화주의를 정책으로 마련해 나가는 데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 :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4~5. 이번에는 협상 장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학생 : 주변 상점들 단체 티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5천 원에서 만 원 사이야. 어제 애들이 추천했던 가게로 가 보자.

여학생 : 이왕이면 디자인 예쁘고, 질 좋은 걸로 해야지.

(가게 문을 열 때 종소리 들림)

아저씨 : 어서 오세요.

남학생 : 안녕하세요. 다음 주가 우리 학교 체육 대회라서요. 단체 티를 맞추려고요.

아저씨 : 그래, 잠깐 기다려 봐라. 여기 견본 있다. 마음에 드는 걸 골라 보렴.

여학생 : 와, 종류가 참 많네요. 근데 요즘 어느 게 잘 나가요?

아저씨 : 이건 값이 싸서 부담은 없는데, 합성 섬유라서 촉감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이건 가볍고 땀 흡수도 잘 돼서, 요즘 단체 티로 많이 나가.

남학생 : 좋아 보이네요. 얼마예요?

아저씨 : 그리 안 비싸. 만 원이야.

여학생 : 너무 비싸요. 저희도 품질 좋은 걸로 하고 싶은데, 학생인 저희들로서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6천 원에 해 주시면 안 돼요?

아저씨 : 많이 사면 모르지만, 몇 장 사는데 그 가격에 주기는 힘들지. 학생들이니까 내가 9천 원까지는 깎아 주지.

남학생 : 저희 두 반만 해도 70장이 넘는 걸요. 또 다른 반 애들도 여기 디자인이 예쁘다고 가격만 적당하다면 여기서 사겠대요. 가서 얘기 잘 할게요. 그러니까 6천 원에 해 주세요.

아저씨 : 그래도 6천 원에는 힘들지.

남학생 : 그럼 옷에 학급 로고를 새겨 주시면, 7천 원에 살게요.

아저씨 : 로고라……. 그것도 제대로 하려면 돈이 좀 드는데. 음, 로고를 그냥 해 주는 대신 9천 원에 하지. 어때?

여학생 : 어우, 그래도 비싸요. 아저씨, 체육 대회 때 쓸 모자도 여기서 단체로 살 테니까 조금 더 깎아 주세요. 네?

아저씨 : 좋아. 그러면 8천 원에 하자. 대신 다른 애들한테도 말 잘해 줘야 돼.

남학생 : 좋아요.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되겠죠?

아저씨 : 그럼. 이제 계약서를 적어 볼까? 8천 원에 학급 로고 새겨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 됐지?